A Daily Bread

בייה

날짜: 5786 년, 칠월 달 3 일 (9 월 25 일, 2025)

토라 몫: 바에렉 (나아가다)

주제: 의로운 자

신명기 31 장 2 절에는 "오늘 내가 백이십 세가 되었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인들은 모쉐께서 120 년을 살았다고 가르칩니다. 여호와 께서"그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창세기 6:3)라고 말씀하심을 이루셨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구전 기록에 의하면 선지자 모쉐께서는 이날 (아달 7 일) 에 태어나 정확히 120 년 후, 그의 탄생 기념일에 돌아 가십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세우고 여호와 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따라서 현인들은 이것이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의 생애에서 드러난 특징이라고 결론짓습니다. 더 불어서 삼대 의의 길을 걸으셨던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스라엘께서도 그분들께서 태어난 날이나 그 달에 돌아 가셨음을 기록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신앙, 신념, 순종의 행위 면에서 선지자 모쉐, 그리고 믿음의 3 대선진들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내려 오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탱하는 많은 의로운 사람들로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일에 본분을 완수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극소수의 의인들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영적으로 바치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삶을 온전하고 순전히 마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 일까를 숙고해봅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신성한 성품을 향해 나아가며 승화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 초월적인 의식을 물리적 세계로 가져 내려오도록 하는 사명, 창조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의로운 사람의 영적 완전함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물리적이 완전함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모쉐께서 돌아 가셨을 당시 그의 삶이 "완전했다"는 토라의 암시는 그의 삶에 있어서 모든 본분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가르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을 향한 선지자 모쉐의 충정의 사역(עֲבוֹדָה: 아보다; 봉사;예배/Service, Worship; Work) 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의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창세기 24:1 에 기록 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물리적 삶이 그의 영적 삶을 완벽하게 하나되어 반영할 때, 그것은 "그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의 양극화라는 현실을 성공적으로 극복했음을 나타냅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첫 아담 시조의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양극화된 곧 이분화 된 인식을 자아냅니다. 둘째 아담, 찌욘(시온)의 첫 열매 되심을 육신 안에서 완전히 이루신 나사렛의 도 여호슈아의 신성한 사명은 선악과로 추락한 영적 인식이, 생명의 나무로 회복하게 하심으로 신의 성품으로 영적인 알리야 (거듭남;승화)에 지속적인 박차를 가하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삶을 육신적 영역과 영적 영역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끊어짐 없이 지속해서 완전한 순환을 이루듯이, 사람의 삶의 해 또한 완전한 순환을 이룹니다. "해"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샤나(שנה)는 "변화"(shinui, שִׁנּוּי)와 "반복"(shinun, שִׁנּוּן)을 뜻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 동일한 특성 가운데 순환적인

변화와 연속성이 동시에 병행함을 시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아주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태어난 날 자에 돌아 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때로는 그들이 본분을 지키는 사명을 미리 완주하셨다는 것이고, 때로는 더 많은 선한 행실을 쌓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생명의 날들이 여호와의 자비로우신 속성 가운데 부여 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극히 드문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의로운 사람들이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난 날에 돌아 가시는 날이 하나로 완전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 그것은 그들이 육신의 옷을 입었던 평생 동안 여호와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진정으로 구현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경의 역사에 한 정점을 이루신 의로운 사람들의 삶은, 우리에게 오늘날에 있어서 바로 눈앞에 마주한 순간적 득과 실을 초월하도록 하며, 신성한 사명에 대한 정신 의식을 매순간 스며들게 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최대한 충만하게 살도록 영감을 부어 주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사이의 인위적인 이분법적인 한계성을 극복하고, 오늘날 마주하는 모든 현실을 사람이라는 영혼 가장 깊은 곳에 기저에 있는 타고난 네훼쉬 엘로힘의 신성이 주관하는 빛의 삶을 나날이 완전히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샬롬.

참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 31:27-2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 19:36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벧후 1:4-10